

석유화학 시장이 장기 침체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들어 수급과 가격이 동떨어지게 움직이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수급과 가격이 별개로 움직이는 석유화학제품은 MEG로 중국 동부지역의 무역상 재고가 80만톤을 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0달러 수준의 강세를 지속하고 있고, 에틸렌이나 프로필렌도 동북아시아의 공급과잉이 확실한 상태에서 1300-1400달러 수준을 형성하고 있다.

물론 동북아시아 석유화학기업들이 공급과잉에 대응해 2013년 봄부터 가동률을 조정함으로써 스팀 크래커의 가동률이 80-90% 수준으로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점에서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스팀 크래커의 가동률이 85%를 하회하면 적자가 불가피하기 때문에 가동률 조정에도 한계가 있고 일본기업들은 90%를 손익분기점으로 잡고 있다는 점에서 적자를 감수하면서 장기간 가동률을 감축할 수 있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

폴리머는 상대적으로 가동률 조정이 용이하다고 하나 에틸렌이나 프로필렌이 톤당 1300달러대에 달하는 상태에서 중합코스트 100-150달러를 감안하면 상시적으로 적자상태가 불가피해지고 있다. 플랜트를 가동하면 가동할수록 적자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에는 중합코스트를 톤당 100달러로 계산하는 사례가 있어 적자가 아니라고 주장할 수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수익을 내기 힘들다는 점을 부인하는 관계자는 없을 것이다.

MEG는 일본계 무역상과 글로벌 3대 메이저, 그리고 동북아시아 현물공급 메이저들이 수급을 조절하거나 가상거래를 통해 사재기하는 방법으로 강세를 유지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폴리머 역시 무역상과 중국계 유통기업, 동북아시아의 현물공급 메이저들이 가동률 조정과 함께 수급을 조절해 높은 가격을 유지시키고 있다는 풍문이 돌고 있다. 중국이 막대한 양의 폴리머를 수입함으로써 가격하락을 방지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중국의 수입물량이 어디로 향하는지, 어디에 사용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을 정도이다.

중국이 기초유분과 함께 폴리머 신증설을 지속한 상태에서 유럽의 재정위기에서 비롯된 수출침체로 폴리머 수요가 약간 증가했거나 정체되고 있어 수입을 확대할 아무런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중국의 폴리머 수입은 2013년 들어서도 증가추세를 지속하고 있다.

중국 동남부나 홍콩 지역에 막대한 양의 폴리머가 쌓여 있을 수 있다는 것으로, 사실이라면 2013년 말이나 2014년 초에는 아시아 석유화학 시장에 허리케인급 태풍이 몰아칠 가능성이 짙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 경제가 단기간에 활성화될 가능성이 없고, 중국의 대외수출도 침체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국내 석유화학기업들이 2014년 몰아칠 것으로 예상되는 쓰나미에 어떠한 방법으로 대응할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 석유화학, 쓰나미를 조심하라!

대표이사 원장, 발행겸 편집인 | 박종우, 인쇄인 | (주)삼화인쇄 유성근, 발행처 | 화학경제연구원

주소 : 152-050 서울 구로구 디지털로 26길 111 Jnk디지털타워 1206호 Tel. 6124-6660 Fax. 6124-6669 www.chemlocus.co.kr

● 본지는 한국간행물 윤리위원회의 윤리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 본지에 게재된 내용 및 자료는 CMRI 소유이며, 무단복사·전제를 금합니다.